지역프랜차이즈를 키우자

하 향토 브랜드 육성해야

‘지역경제 이끌 산업’ 지자체 인식 전환 급선무

창업자금·박람회 참가·가맹본부 개설 등 지원 절실

전북도·대구시는 ‘전국구 스타 프랜차이즈’ 키워내

‘아주커치킨’, ‘레몬테이블’, ‘동아리 꼬치구이’, ‘까투리’, ‘마포진갈매기’, ‘지오파스타’, ‘난타5000’….

지역민이라면 한 두번씩 들어본 브랜드들로, 광주에 가맹본부를 둔 지역 프랜차이즈다. 하지만 이들 브랜드는 광주·전남을 벗어나면 접하기 쉽지 않다. 규모와 인지도에서 영세함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교촌치킨과 호식이2마리치킨, 멕시카나치킨 등 대구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는 ‘전국구’ 인지도를 가졌다. 대구시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다. 최근 광주지역 국밥 프랜차이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현대옥은 전북에 본사를 두고 전국화한 브랜드다. 다사랑치킨, 햇살치킨, 완산골명가, 고궁 등 지역에서도 익숙한 외식 브랜드 모두 전북에서 출발했다.

전북도와 대구시 모두 프랜차이즈 산업을 전담하는 담당공무원이 존재한다. 이들 지자체는 지역 프랜차이즈협회에 예산은 물론, 산업화 논의 등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프랜차이즈협회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자체적으로 프랜차이즈박람회를 개최했다. 교육을 담당하는 프랜차이즈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업체당 1000만원을 지원하는 가맹본부 개설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지난해 2월 광주시와 조선이공대학이 발간한 광주지역 프랜차이즈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는 2011년 12월 기준 63개의 가맹본부가 있다. 이 가운데 외식과 주류, 패스트푸드 등이 57개를 차지한다. 이에 반해 전북지역의 가맹본부는 110여개에 이른다. 프랜차이즈협회 회원사만 40여 곳이다. 광주의 경우 20여 곳이 채 되지 않는다.

전북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비와 가맹본부 개설 지원은 결과적으로 창업에 뛰어든 자영업자의 활발한 운영을 보장한다”며 “향토 브랜드 육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쟁력 확보 등 지자체와 협회의 의견이 맞물리면서 다양한 지역 브랜드가 창업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광주시의 인식 전환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문행우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광주지회 상임부회장은 “마케팅은 물론 자영업자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등 프랜차이즈 산업 정착을 위해 광주시가 지원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장래성이 있는 가맹본부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넓히는 것도 한 방안이다. 지역 브랜드 육성을 위해 수도권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비를 지원하고, 디자인센터를 이용해 가맹본부의 브랜드 디자인 등을 지원하는 것도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협동조합 형태로 자영업자를 묶어 하나의 브랜드로 유도해 협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문 부회장은 “광주의 한 치킨브랜드와 대구의 치킨브랜드가 10여년 전 동시에 서울로 진출했지만 두 곳 모두 실패했다. 그 뒤 대구의 치킨브랜드는 다시 도전해 현재는 전국 브랜드가 됐다”며 “업계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지자체가 프랜차이즈를 자영업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부영, 여수 죽림택지개발지구에 공공임대아파트 2206세대 분양

㈜부영주택이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 죽림택지개발지구에 여수죽림 ‘사랑으로’ 부영 B2·C1 B/L 공공임대아파트 2206세대를 선착순 동·호지정으로 공급한다.

여수죽림 B2·C1 ‘사랑으로’ 부영은 지하 1층, 지상 14~15층 33개동 규모에 전용면적 59~84㎡ 총 2206세대로 구성됐다. 59㎡는 임대보증금 5000~5300만원에 월임대료 19~21만원이며 84㎡는 임대보증금 6500~6700만원에 월임대료 30만원이다.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세대에 발코니 확장과 새시 시공을 했으며 B2블럭은 내년 1월에, C1블럭은 4월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단지주변에 성산·무선·도원초등학교와 안산·삼일중학교(예정), 여천·부영여고 등이 인접해 교육여건이 뛰어나다. 또 여수시청과 여천전남병원, 농협, 마트, 우체국, 성산공원 등 생활편의시설이 인근에 있어 우수한 생활여건이 장점이다.

특히 덕양로와 도원로를 통해 도심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하며 순천~완주간 고속도로는 물론 국가산단연결도로도 예정돼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여수엑스포는 물론 여수예울마루, 여수해안길, 오동도, 금오도, 거문도, 돌산대교, 향일암 등의 휴양지 문화 인프라에 따른 미래가치 또한 높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조 임금협상 합의안 가결

금호타이어 노조가 2013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가결했다.

금호타이어는 3일 올해 임금협상 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펼친 결과, 광주·곡성· 평택공장 조합원 3017명 중 2645명(87.67%)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838명(69.49%), 반대·무효 778명(29.41%)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5월16일 노사 대표의 상견례에 이어 21일 첫 교섭을 벌였다. 이후 12차례의 교섭을 거쳐 지난 달 26일 임금협상안에 대해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합의안은 임금동결과 월평균 급여 228% 수준의 격려금지급, 지속성장이 가능한 회사를 만들기 위한 노사간 상호노력, 국내공장의 발전과 고용안정을 위한 실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합의안이 가결되면서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 조기졸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다음주 노사가 임금협상 합의안에 대한 최종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라며 “워크아웃 졸업을 위해 노사가 최선을 다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아시아나 삼계탕 기내식 아시아나항공이 7~8월 기내에서 여름을 대표하는 삼계탕과 삼계죽, 오디 산마죽 등 닭과 한방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특별 건강식을 선보인다. 〈아시아나항공〉

광주 기업들 경기회복 기대

3·4분기 BSI 101…2분기 연속 기준치 웃돌아

광주지역 기업들이 3분기에도 경기회복에 대해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상공회의소가 내놓은 ‘2013년 3·4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119개 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출실적 호조가 내수의 회복 흐름을 이끌면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10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4분기(104)보다 3포인트 하락해 상승세는 둔화했으나 전국 평균치 ‘97’보다는 높은 수치며 2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웃돌아 경기호전 기대감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BSI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경기가 전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나타낸다.

2013년 2·4분기 BSI 실적치는 79로 집계돼 지난 1분기 실적치 51보다 28포인트 상승하며 4분기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업종별로는 생산과 수출이 호조를 보인 전기·전자(116)와 사회간접자본(SOC) 착공으로 비수기를 벗어난 비금속광물(117)이 지난 분기보다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특히 대기업(123)과 수출기업(113)에서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게 나타났다. 대기업은 영업이익(85)을 제외한 전 항목에서 기준치(100)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고, 수출기업은 환위험에 따른 영업이익(63) 하락을 제외하고는 전 항목의 지수가 양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기업(103→98)은 대외여건(90)과 대내여건(94) 불안으로 영업이익(85), 자금사정(95) 등의 개선 전망이 불투명할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대기업 위주로 기대감이 상승했지만 ‘엔저 지속’ 등 대내외 위험 요인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은 경기회복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불안요인에 따른 충격 최소화와 내수회복에 정부의 정책역량을 더 집중해 체감경기가 나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

환아 돕기 협약…‘보해 힐링의 날’ 행사

보해(대표 임효섭)가 오는 5일 소비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백혈병, 소아암 환자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보해 힐링의 날’ 이벤트를 개최한다.

보해는 5일 오후 광주 무등야구장에서 보해 임효섭 대표와 보해의 소주 브랜드 모델인 한가인, 화순 전남대병원의 주요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환아들의 꿈을 응원하는 기금 조성 협약식을 갖고 경기장을 찾은 광주 시민들과 보해의 날 이벤트를 펼친다.

보해는 한달 간 소주 제품 판매 수익금으로 약 1200여 만원을 조성해 화순 전남대 병원에 기탁하고 환아들의 의료비와 수술시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광구 무등경기장에 야구를 좋아하는 환아들과 가족 100여명을 초청해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소주 모델 배우 한가인이 백혈병 환아의 시구를 돕고 야구 관람객들을 위해 한가인 사인볼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경품 제공 행사도 마련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건설하도급 계약 지급보증 확대 4000만원서 1000만원 초과 공사로

건설하도급 계약 때 수급 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건설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최저 공사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하도급 공사 15만473건(2011년 기준) 가운데 3만7375건(25%)이 신규로 혜택을 보게 된다.

조정협의 신청요건은 ‘계약 체결 후 90일 경과’에서 60일 경과로 완화했고, 원재료 가격 상승 조건도 ‘15% 이상 상승’에서 10% 이상으로 낮췄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 (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 1824.66(-30.36)	▼ 521.31 (-5.61)	▲ 2.95% (+0.01)	▲ 1143.70원 (+9.70)